

천도교의 비유(比喩) 연구¹⁾

오문환(서강대 강사)

초록

보이지 않는 형이상(形而上)의 본체 또는 궁극존재는 보이는 구체적인 자연사물에 비유하는 방법은 예로부터 사용되어온 방법이었다. 천도교에는 이러한 비유들이 적지 않지만 이 글에서는 종교와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논제인 본체와 활동의 문제와 관련된 비유로서 4가지를 그리고 없음과 있음의 문제와 관련된 비유 4가지를 각각 제2장과 제3장을 통하여 살펴본다.

본체와 활동과 관련된 비유로서 『시경』의 ‘도끼자루’의 비유, 천도교의 독특한 ‘산위의 물’의 비유, 동양에서 가장 일반적인 ‘거울’과 ‘달’의 비유를 통하여 천도교에서는 본체와 활동은 내외관계로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둘이 아님’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없음과 있음이라는 아주 기초적이면서 근본적인 철학적 문제에 대해서는 고대 동양문명의 시조라 하는 천황씨와 관련된 ‘근본이 없는 사람’의 비유, 해월의 독창적인 보이지 않는 물인 ‘음수(陰水)’의 비유, 『시경』의 ‘저울과 눈(眼)’의 비유는 모두 보이지 않고 형상이 없고 무체는 본래 아무것도 없는 절대무가 아니라 우주만유와 인간만사의 근원적 토대이자 바탕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있다’고 하는 현상계의 중심자리임을 알 수 있었다.

8가지 비유들에 동원되는 자연사물 또는 천황씨와 같은 인물은 모두 다 자연계와 역사에 뚜렷하게 존재하거나 존재했지만 비유들의 본뜻은 한결같이 보이지 않는 근본본체 또는 근본원천의 특성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본체는 감각이나 인식에 의하여 보여지고 파악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무극대도(無極大道)’, ‘무체법(無體法)’처럼 주로 ‘없음(無)’이 강조되지만 실상은 없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자연계와 인간계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없는’ 자리에 존재뿌리를 내리고 태어나서 활동하다 소멸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체용상통(體用相通), 유무일여(有無一如)의 정신을 볼 수 있었다.

주제어: 비유, 본체와 활동, 유와 무, 도끼자루, 산위의 물, 거울, 달, 근본이 없는 사람, 음수, 저울, 눈

1) 본 논문은 천도교교수회가 주최한 제2회 학술발표회에서(시간: 2011년 9월 25일 오후2시 장소: 천도교대교당)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임.

I.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줌

천도는 형상이 없어 보이지 않기에²⁾ 보이는 자연사물에 빗대어 그 의미를 전하고자 예부터 비유의 방법이 활용되었다. 수운 최제우는 ‘비(比)’와 ‘흥(興)’이라는 동양시의 고전적 비유로 지은 「흥비가」라는 가사를 직접 짓기도 하였다. 「흥비가」는 『시경(詩經)』의 유명한 도끼자루 비유로 시작되고 있다. 동학·천도교는 천도 또는 한울님과 같은 무형의 형이상을 어떤 유형의 자연사물을 통하여 형상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무형의 본체를 사물로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비유는 강력한 메시지 전달능력을 갖는 동시에 본체로의 단도직입(單刀直入)적 통찰력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비유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본뜻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해석을 할 위험성도 높다. 엄밀한 논리적 분석에 기초하지 않고 시적 상상력이나 직관적 통찰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해석학적 오해의 가능성에 열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해도 이해라는 해석학적 지평확장의 맥락에서 보자면 문학적, 시적 상상력은 이해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긍정적 기여를 하기도 한다.

천도교에서 천도·본체의 비유적 설명은 매우 다양하지만 이 글에서는 대략 8가지 정도의 비유를 소개하고자 한다. 8가지 비유들을 선택한 이유는 종교나 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이지 원초적인 논제라 할 수 있는 본체와 활동의 관계와 없음과 있음이 어떤 비유들을 통하여 설명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제2장에서는 본체(本體)와 활동(活動)의 논제에 대한 비유들로서 ‘도끼자루’의 비유, ‘산위의 물’의 비유, ‘거울’의 비유, ‘달’의 비유 4가지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없음과 있음(無有)의 논제를 잘 보여주는 ‘근본이 없는 사람’의 비유, ‘음수(陰水)’의 비유, ‘저울’과 ‘눈(眼)’의 비유 4가지 비유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본체와 활동의 비유들

본체는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으면서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지만 활동은 온갖 움직임을 통하여 무궁히 드러남을 말한다. 이 논제는 분야와 논의 수준에 따라서 본질과 현상, 체(體)와 용(用), 초월과 내재, 신과 인간, 리(理)와 기(氣), 성(性)과 심(心) 등과 같은 논제들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천도교는 어떤 비유들을 통하여 설명하기 어려운 종교적·철학적 논제들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2.1. ‘도끼자루’의 비유

“시운(詩云) 벌가벌가(伐柯伐柯)하니 기측불원(其則不遠)이라
내앞에 보는것을 어길바 없지마는
이는도시(都是) 사람이오 부재어근(不在於)이로다
목전지사(目前之事) 쉬이알고 심량(心量)없이 하다가서
말래지사(未來之事) 같잖으면 그아니 내한(恨)인가
이러므로 세상일이 난지이유이(難之而猶易)하고
이지이난(易之而難)인줄을 깨닫고 깨달을까”³⁾

2) 「논학문」1, “夫天道者 如無形而有迹”

3) 「흥비가」1

『시경』의 도끼자루 비유는 유명하다. 무왕의 동생으로 주 나라 예악을 완성한 성인으로 추앙받는 주공(周公)이 어린 조카 성왕(成王)을 둘러싼 간신배들의 모함에 대응하여 지었다고 하는 ‘벌가(伐柯)’는 도(道)의 가까움과 국가정치와의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비유하였다. 성왕은 주공이라는 성인을 자기 손안에 쥐고서도 이를 몰라보고 밖에서 새로운 인물을 구하려는 어리석음을 ‘도끼자루 베는’ 시로서 풍자한 것이다.⁴⁾ 주공과 성왕의 관계가 도끼자루와 도끼날의 관계와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비유되고 있음을 시에서 볼 수 있다. 성왕은 세속의 권력, 주공은 도덕을 완성한 성인의 비유이다. 유가에서 성왕은 주공에 힘입어 주나라 도덕정치를 완성한 임금으로 평가되었다.

물론 수운은 이 비유로 도덕과 세상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쉬운 일이든지 아니면 어려운 일이든지 모두 다 천도와 의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쉬운 일이라도 경솔하게 처리하지 않아야 내일의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으며, 어려운 일이라도 지혜롭게 극복할 때 비로소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흥비가’는 가르치고 있다. 쉬운 일을 경솔히 하다가는 반드시 나쁜 사람의 꾀임에 빠지게 되어 불행하게 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포기하게 되면 세상에 이를 일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쉽거나 어렵거나 세상사를 오직 천도에 힘입어 슬기롭게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천도는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 이 비유의 가르침이다.

겉으로 보게 되면 참으로 복잡하고 어지럽게 얽혀 있는 것이 세상사이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수한 일들이 일어나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 험악한 마음씀씀이가 횡행하는 것이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삶의 잣대로 삼아서 살아갈 것인가? 수운은 “사사상수(師師相授) 한다해도 자재연원(自在淵源) 아닐런가”⁵⁾라고 하여 스승에게서도 배우지만 역시 근본 해답은 자기 안의 천도에 있다고 하였다. 내 안의 천도란 천심을 말한다. 도(道)의 원천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이다. 자기 안의 ‘본래의 나’에게서 해답을 찾을 때 어렵고도 쉬우며 쉬우면서도 어려운 세상살이에서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내 안의 연원’을 수운은 ‘흥비가’ 말미에서 ‘무궁한 이 울 속에 무궁한 나’⁶⁾라고 표현하고 있다. 영원무궁한 ‘나’의 발견이야말로 수운이 찾아낸 해답이었던 것이다. 이 ‘무궁한 나’는 ‘본래의 나’ 또는 ‘성심본체’로 표현할 수 있다. 자기 안에서 이 ‘본래의 나’ 또는 ‘성심본체’를 찾은 사람은 세상살이의 쉽고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지혜롭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세상사를 살아가는 법칙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본래의 나’ 또는 ‘성심본체’인 것이다. ‘도끼자루’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살이 속에서 내 안의 천도를 잃지 않는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수운이 『시경』의 도끼자루 비유를 인용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무엇이 근본이며, 본체이며, 중심인지를 가르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이 본체에 기초할 때 쉽고도 어려운 세상사를 지혜롭게 살아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양정치의 이상이라 할 수 있는 ‘도덕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다.

4) 『詩經』 <豳風·伐柯> “伐柯如何，匪斧不克。取妻如何，匪媒不得。伐柯伐柯，其則不遠。我覯之子，籩豆有踐。” 도끼자루 베려면 어떻게 하나 도끼 아니면 벨 수 없네. 아내 맞으려면 어떻게 하나 중매인 아니면 얻을 수 없네. 나무 베어 도끼자루 만들려면 그 본보기 멀리 있는 것 아니네. 내 그님을 만나면 예식 갖추어 성흥하리.” 『中庸』第13章에서 공자는 “도는 사람에게서 멀리 있지 않은데 사람들이 도를 행하면서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니 이렇다면 도라고 할 수 없다”라는 자신의 말을 주공의 벌가(後可) 시를 인용하여 뒷받침하고 있다.

5) 「흥비가」3.

6) 「흥비가」7.

2.2. '산위의 물'의 비유

천도(天道)에 대한 동학의 가장 독창적인 비유중의 하나가 '산위의 물'의 비유이다. 「불연기연」에는 다양한 비유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산위의 물'이다.

“산 위에 물이 있음이여, 그것이 그럴 수 있으며 그것이 그럴 수 있는가.山上之有水兮 其可然其可然”⁷⁾

물은 본성상 산 위에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어찌하여 산 위에 물이 있을 수 있는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는 '산위의 물'을 이해할 수 없다. 아래로 흐르는 물이 산 위에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고정관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보게 되면 '산위의 물'이 있는 것은 당연히 그렇고 또 그런 일이다. 왜 그런가? 하늘에서 비가 오기 때문이다. 비구름(水雲)이 산 위에 비를 뿌려주니 산위에 물이 있고 그 물의 덕(水德)으로 못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늘에 비구름이 있기에 산 위에 물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산위의 물이란 곧 하늘의 물이며, 이 하늘의 물은 유형의 물이 아닌 무형의 물이라 할 수 있다. 무형의 보이지 않는 물은 해월이 '음수(陰水)'로 비유한 바 있다. 해월의 '음수'는 뒤에서 좀더 논의할 기회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산위의 물'이란 다름이 아니라 우주에 꼭 차 있는 보이지 않는 음수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비유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비유적 설명방식이다.

좀 더 철학적으로 표현으로 하자면 “선악간 마음용사 이는 역시 기운이요”⁸⁾이라는 수운의 언명을 들 수 있다. 하늘기운이 있기에 사람은 마음을 어떤 때는 착하게도 쓰다가도 어떤 때는 사악하게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하늘기운이 없다면 착한 마음도 악한 마음도 쓸 수 없다. 세상만사가 모두 다 하늘기운으로 말미암지 아니함이 없는 것이다. 하늘이 있으므로써 밥을 먹고, 일을 하고, 길을 가는 것이다. '산위의 물'은 하늘기운이 있어 못 활동하는 기운들이 우주에 넘쳐나 활동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주만유가 모두 다 무극대도의 드러남이 아님이 없는 것이다. 인간만사와 우주만물을 모두 다 조물자에 붙여보아⁹⁾ 그렇고 그렇게 된 까닭을 알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조물자가 인간과 우주 밖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심본체라는 것을 깨달았으므로 '한울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라(吾心卽汝心)'고 한 것이다.

'산위의 물'을 비유로 보지 아니하고 역의 '수산건괘(水山蹇掛)'¹⁰⁾로 보는 주장도 있다고 하

7) 「불연기연」5.

8) 「도덕가」3.

9) 「불연기연」6.

10) 감괘(坎卦)가 위에 간괘(艮卦)가 아래에 있는 괘로서 원문은 '서남에 이롭고 동북에 이롭지 못하고 대인을 봄에 이롭고 곧으면 길하리라.'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는 참고 기다리면 극복할 수 있지만 무리하게 추진하면 낭패하게 된다. 효사는 다음과 같다. 1효는 가면 절뚝거리게 되고 돌아오면 명예롭다. 전진하면 위태로워지고 자중하고 물러서면 이롭다. 2효는 왕의 신하들이 절뚝거리는 것은 신하들의 몸 때문이 아니다. 자신의 이해를 위한 욕심을 버리고 최선을 다하여 노래해야 한다. 3효는 전진하면 절뚝거리고 물러서면 상황이 반전된다. 내실을 다지고 뒤로 물러서면 기쁨을 얻으리라. 4효는 전진하면 절뚝거리게 되고 돌아오면 연결될 것이다. 무리하게 나아가지 않고 물러서면 협력할 동지를 구하게 된다. 5효는 크게 절뚝거리니 벗이 찾아온다. 큰 고난 중에서도 스스로 중용을 지키면 주위로 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6효는 전진하면 절뚝거리나 돌아오면 큰 성과가 있어 길하니 대인을 봄이

지만 해월이 「명심수덕」에서 말하는 바를 보면 ‘산위의 물’은 비유적 표현임을 알 수 있다.

“말씀하시되 태고에 천황씨는 우리 스승께서 스스로 비교한 뜻이요, 산위에 물이 있는 것은 우리교—도통의 연원이라. 이러한 현기와 진리를 안 연후에 개혁의 운과 무극의 도를 알 것이 라. 曰太古兮天皇氏 我先師自比之意也 山上有水 吾教道統之淵源也 知此玄機眞理然後 有以知開關之運無極之道矣”¹¹⁾

‘천황씨’는 수운 선생 스스로의 비유이며, ‘산위의 물’이라는 것은 동학의 도통연원을 비유한 것이다. 수운은 ‘산위의 물’과 함께 ‘용담의 물’이 사해에 흘러들어가는 것에 자신의 도를 비유하기도 했다. 산은 불변하는 진리 본체를, 물은 변화하는 기운운행을 비유하는 고전적인 비유이다. 의암은 “마음은 큰 산과 같고 기운은 강과 같다”¹²⁾고 하였다. 물론 이때의 마음은 마음기운이라기보다는 하늘마음, 성품마음, 본마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마음기운과 달리 표현하여 성품이라 한다. 불가에서는 산은 불성, 법성, 자성 등으로 표현되는 불생불멸을 비유하고, 물은 변화무쌍한 기운작용을 비유하는 개념으로 선승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개념이다. 성철 스님에 의하여 유명해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山是山 水是水)”는 화두는 기원은 오래 되었다.¹³⁾ 산과 물은 모두 비유적 표현이며 시적 표현이다.

이러한 전통에서 보자면 산은 성품본체의 비유요, 물은 마음기운의 비유로 볼 수 있다. ‘산위의 물’의 문자적 의미는 성품 위의 마음기운이다. 즉, 성품에 바탕한 마음기운인 것이다. 성품을 얻은 마음기운인 것이다. 즉, 견성한 마음인 것이다. 성품을 얻은 마음은 무한·영원·궁극·영생을 얻은 마음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무한한 능력, 무한한 지혜, 무한한 덕을 얻은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산위의 물’이 만물의 생명수가 되듯이 성심본체를 얻은 마음은 못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운은 ‘한울님께 복록정해 수명을랑 내게비네’¹⁴⁾라고 하였다. 천도교는 ‘산위의 물’, ‘무형의 물’, ‘하늘의 물’, ‘음수’로 못 생명들을 살리는 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3. 거울의 비유

천도의 비유적 설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아마도 거울과 달일 것이다. 이 비유는 적어도 동양에서는 대부분의 종교철학 전통에서 거의 다 보여진다.¹⁵⁾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이롭다. 앞으로 나아가면 낭패가 있으나 물러서서 뜻을 안에 두면 큰 성취를 얻게 될 것이다. 이 궤는 주역 육십사괘중 4대 난괘(難掛)의 하나로 험난함이 크므로 물러서서 자신의 본분을 지키라는 교훈이 크다.

11) 「명심수덕」30-1.

12) 의암, 「우음」 “心如泰山氣如江” 여기에서 태산은 중국 산둥반도에 있는 태산(泰山)의 고유명사가 아닌 큰 산으로 보는 것이 뒤의 기는 강과 같다는 구절과 쌍을 이룬다.

13)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화두는 『續景德傳燈錄』卷22에 등장한다. “山是山 水是水/ 山不是山 水不是水/ 山是山 水是水”의 화두는 임제종(臨濟宗) 황룡파(黃龍派) 청원유신선사(靑原惟信禪師)의 상당법어(上堂法語)였고, 『傳心法要2』, 第2篇 宛陵錄에 기록된 것이 효시다. 고려말기 백운(白雲) 화상이 참선 화두로 제시하였다. 오도(悟道)의 명구를 소개한 『直指心體要節』을 펴내게 하였다. 백운화상은 참선하기 전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로 보았다. 선지식을 만나 깨우친 뒤에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님을 보았노라. 지금 편안한 휴식처를 얻고 나니 마찬가지로 산은 다만 산이요 물은 다만 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대들이여 이 세 가지 견해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고 화두를 던졌다.

14) 「안심가」8.

로부터 동경(銅鏡)은 지배자의 대표적인 상징물중의 하나였다. 단군이 하늘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천부각경(天符刻鏡)의 신물(神物)도 이런 비유의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천도교에서의 거울의 비유는 다른 곳에서 이미 논의한 바 있으므로¹⁶⁾ 여기에서는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간략하게 보고자 한다.

거울 자체는 흔들리지 않고 물들지 않으면서도 그 앞에 오는 어떤 것도 그대로 반영하는 작용을 하므로 비고 고요한 성품과 활동하고 움직이는 마음의 관계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비유로 애용되었다. ‘본래의 나’ 또는 ‘성심본체’를 거울에 직접적으로 비유한 글은 의암에게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나는 성품과 이치의 거울이요, 한울과 땅의 거울이요, 예와 이제의 거울이요, 세계의 거울이요, 나는 성품과 이치의 한울이요, 한울과 땅의 한울이요, 예와 이제의 한울이요, 세계의 한울이니, 내 마음은 곧 천지만물 고금세계를 스스로 주재하는 한 조화옹이니라. 이러므로 마음 밖에 한울이 없고, 마음 밖에 이치가 없고, 마음 밖에 물건이 없고, 마음 밖에 조화가 없느니라. 我爲性理鏡 天地鏡 古今鏡 世界鏡 我爲性理天 天地天 古今天 世界天 我心 卽天地萬物 古今世界 自裁之一造化翁 是以 心外無天 心外無理 心外無物 心外無造化”¹⁷⁾

‘거울의 나’는 곧 한울이며, 조화옹이므로 이 ‘나’의 마음을 떠나서 따로 하늘도 없으며 조화도 없다고 하는 것이다. ‘거울의 나’를 얻지 못한 나는 기껏해야 백년을 살다가는 보통의 사람일 뿐이다. 그러나 거울을 얻게 되면 나는 무한존재인 ‘성심본체’로서 영원을 살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알고자 하는 것을 완전히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수운은 ‘만사지(萬事知)’라 한 것이다. 만사란 만가지 일이라는 뜻도 있지만 속뜻은 우주간의 모든 일이라는 뜻이다. 비추는 곳에 따라 다양한 우주만유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성심본체를 의암은 천지를 삼키고 뱉는 것을 자유로 하는 거울에 비유하고 있다. 성심본체는 천지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천지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중심인 것이다.

“보배로운 거울이 비고 비어 비쳐 매달린 것을 머금어 능히 천지를 삼키고 능히 세상을 뱉는 도다. 寶鏡虛虛含照懸 能呑天地能吐世”¹⁸⁾

이 중심에 이르게 되면 사람은 ‘거울 하나를 가진 존재’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의암은 “사람이 태어난 그 처음에는 실로 한 티끌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다만 보배로운 거울 한 조각을 가진 것 뿐”¹⁹⁾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누구나 가지고 태어난 거울이란 어떤 유형의 형상을 가진 거

15) 『莊子』, <德充符篇>1.2. 춘추시대 노나라에 왕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덕망이 높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공자의 제자 상계가 그 이유를 물었는데 공자는 다음처럼 대답했다. “사람들은 흐르는 물에는 얼굴을 비춰볼 수 없고 고요한 물에 얼굴을 비춰본다. 왕태의 마음이 고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다(人莫鑑於流水, 而鑑於止水, 唯止能止衆止).” “거울에 흐림이 없으면 먼지가 앉지 않으나 먼지가 묻으면 흐려진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오랫동안 현자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맑아져 허물이 없어진다.(鑑明則塵垢不止, 止則不明也. 久與賢人處則無過.)”. 중국선가에는 거울의 비유는 많이 나타난다. 馬祖道一(709-788)과 南岳懷讓의 대화가 대표적이다. 마조는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들 수 있겠느냐?” 남악의 대답은 “벽돌이 거울이 될 수 없다면 좌선으로 어찌 부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神秀(?-706)의 “몸은 보리수이고(身是菩提樹) 마음은 명경대와 같다(心如明鏡臺)”는 말에 육조 혜능의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고 명경은 본래 대가 아니다”라는 화두는 북종과 남종을 가르치게 된다.

16) 오문환, 『봄: 본래의 나를 찾는 마음공부』, 모시는사람들, 2009, 68-73쪽 참조.

17) 『무체법경』, <견성해>1-4-6.

18) 의암, 『강시』31-1-2.

울이 아니라 무형의 본체이다. 그러므로 의암은 다음처럼 말한다.

“거울 속에서 티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티끌이 일어나 거울에 붙나니, 만약 본래 거울이 없으면 많은 티끌이 어느 곳에 붙으랴. 鏡裡不生塵 萬塵起着鏡 若使本無鏡 萬塵何處着”²⁰⁾

무형의 거울은 체가 없기 때문에 먼지가 붙을 수 없다. 그러므로 닦으려 하지만 닦을 거울도 없고, 씻으려 하지만 씻어낼 먼지가 있을 수 없다. 보려고 하지만 보이지 않고, 닦으려 하지만 닦을 수 없다. 깨달으려 하지만 깨달을 것이 없고, 구하러 하지만 구할 것이 없다.

거울은 무형의 본체와 유형의 활동작용의 불가분리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비유이기에 성심을 설명하는데 애용되었다.

2.4. 달의 비유

성심본체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면서 강력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비유는 「후경1」의 첫머리에 나타난다. 「후경1」은 성심에 대한 「무체법경」의 철학적 설명과 대비되는 눈앞에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비유적 설명이다.

“그 성품은 달이 만경창파에 떨어져 숨은 것 같고, 그 마음은 불이 천리장풍에 일어나 타는 것 같으니라. 其性 如月落隱萬頃蒼波 其心如火起燒千里長風”²¹⁾

성품은 만경창파에 떨어진 달에, 마음을 천리장풍에 타오르는 불에 비유되고 있다. 성품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솟아났다가 즉시로 꺼져버리는 물거품과도 같은 파도마다 알알이 떨어져 숨어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월인천강(月印千江)의 비유보다도 더 생생한 그림을 펼쳐주는 듯하다. 성품은 우주만유에 예외 없이 떨어져 숨어 있지만 마음이 없다면 이를 알 길이 없다. 마음의 밝음이 있어야 성품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마음은 천리장풍을 타고서 온 우주를 타오르는 불처럼 환히 밝히고 있는 데 비유되고 있다. 비록 우주만유는 물거품처럼 무상하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는 영원불멸의 성품이 숨어 있으며, 마음은 물들고 흔들린다고 하지만 우주만유의 가장 구석진 곳까지 예외 없이 밝히는 일월보다도 밝은 빛인 것이다.

만경창파에 떨어진 그 달을 잡으려고 이태백은 호숫가에 빠져죽었다는 고사를 수운도 읊고 있다.

“밝은 달의 밝고 밝음이여, 이태백이 안으려던 바요. 明月之明明兮 曰太白之所抱”²²⁾

이태백은 밝고 밝은 그 달을 안으려고 호수에 뛰어들었지만 그 밝고 밝음이 자기 안에 있음을 안다면 왜 호수에 뛰어들 것인가? 그렇지만 위의 시는 밝음에 대한 이태백의 절절한 사모의 마음을 드러내준다.²³⁾ 수운이 그 때 살았더라면 천하제일의 시선(詩仙) 이태백도 죽지 않고 살아 주

19) 「무체법경」, <성법설>1-8-3. “人生厥初 實無一毫持來 只將寶鏡一片”

20) 의암, 「우음」.

21) 「후경1」2-1.

22) 수운, 「화결시」

23) 이태백의 유명한 ‘月下獨酌’에는 달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배어있다.

花間一壺酒，獨酌無相親。 꽃밭 속에 술 한 동이 들고 와 친한 이 없이 홀로 마시네

옥같이 아름다운 시들로 우리 마음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수운이 ‘늦게 난 것을 한탄’할 만하지 않겠는가?

수운은 「전팔절」에서는 “밝음이 있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멀리 구하지 말고 나를 닦으라.(不知明之所在 遠不求而修我)”고 하였고 「후팔절」에서는 마음을 그곳에 보내라고(不知明之所在 送余心於其地) 하였다.²⁴⁾ 밝음이 있는 곳이 마음이요, 마음이 가는 곳에 밝음이 있기 때문이다. 달이 밝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밝은 것이기 때문이다. 우주에서 가장 밝고 밝은 천주가 이 마음에 모셔져 있기 때문이다. 태양과 달보다도 더 밝기에 우주가 처음으로 열려 밝아진 날인 것이다. 우주창조가 아니라 우주가 태어난 이후에 태어난 마음이 처음으로 이를 밝혔기 때문에 해월은 수운 대선생을 ‘후천 천황씨’라 하였다.

맑고 너른 호수에 비친 달이야 누군들 보지 못하랴. 더럽고 좁은 진흙탕에 비친 달이 오히려 더욱 밝은 줄은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른다. 그러므로 해월은 자기의 ‘버선이 귀한가 아니면 어머니 살이 더 중한가’²⁵⁾라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졌다. 그리고 만약 진흙의 땅을 어머니 살처럼 소중하게 여기게 되면 진흙탕 길을 걸어도 버선이 더러워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어머니 살보다 자기의 하찮기 짝이 없는 버선을 소중하게 여겨 진흙길은 피해가는 데만 골몰한다. 그렇지만 천하가 진흙길인데 어떻게 자기의 버선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암은 이 만진(萬塵)에서 벗어나는 묘법을 말해주겠노라고 장담하였다.

그 해답으로 의암은 ‘나는 정있는 먼지요 세상은 정없는 먼지이니 정있는 것이 정없는 것을 빼앗는 것은 본래 그러한 것’²⁶⁾이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먼지에 물들었다 또는 진흙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말하지만 그 진흙 구렁텅이는 사람의 눈으로 본 것이요, 실상은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성품한울의 달이다. 영안(靈眼) 또는 심안(心眼)이 열려야 비로소 볼 수 있는 성품 달이 먼지티끌마다 떨어져 숨어 있는 것이다. 본래 없는 성품한울은 그 어떤 것도 물들이거나 더럽히지 못한다. 이것이 만진의 구렁텅이에서 해탈하는 방법이라고 의암은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다. 먼지도 달이요 나의 버선도 실상은 달이므로 무엇이 무엇을 물들이고 더럽힐 수 있겠는가? 이러한 경지를 수운은 다음처럼 시로 읊고 있다.

“하늘 맑고 달 밝은 데 다른 뜻은 없고 좋은 웃음 좋은 말은 예로부터 오는 풍속이라. 淸霄月
明無他意 好笑好言古來風.”²⁷⁾

성심본체를 얻었을 때의 경지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휘영청 밝은 달밤 오직 서로 웃고 서로 좋은 말을 나누는 그런 경지를 이렇게 노래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좋은 풍속은 찾아볼 수 없고 낮설고 낯선 ‘음해가 주장인’ 풍속만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한탄했다.²⁸⁾ 누구나가 그 밝고 밝은 성품

舉杯邀明月，對影成三人。 잔 들어 밝은 달 맞이하니 달님과 그림자 그리고 나 셋이구나
月既不解飲，影徒隨我身。 달은 아예 술 마실 줄 모르고 그림자는 부질없이 흉내만 내네
暫伴月將影，行樂須及春。 한동안 달과 그림자 벗하여 이 봄밤을 함께 즐기네
我歌月徘徊，我舞影零亂。 내가 노래하니 달이 노닐고 내가 춤추니 그림자 어지럽네
醒時同交歡，醉后各分散。 깨어서는 함께 같이 즐기고 취하고 나니 각자 흩어지네
永結無情游，相期遊雲漢。 정없는 놀이 길이 맺고자 머나먼 은하에서의 만남을 기약하네

24) 「전팔절」, 「후팔절」

25) 「성경신」10-5.

26) 「무체법경」, <진심불염>1-9-2

27) 수운, 「우음」

28) 「흥비가」2, “이세상 풍속됨이 음해가 주장이라”; 「권학가」3, “생장한 이내곳에 인심풍속 한탄해서 불교 가산 발정하여 방방곡곡 찾아와서 매매사사 살펴보니 허다한 남녀사람 사람마다 낮이설고 인심풍속 하는거 동 매매사사 눈에거쳐 타도타관 아닐런가”

을 깨달아 즐거움으로 웃음이 그치지 않는 그 세계는 물고기가 나비가 되고, 구름이 땅이 되는 그런 세상이라고 제목자체가 역설적인 「밤을 노래하는 시(詠宵)」에서 수운은 노래하고 있다.

“연꽃이 물에 거꾸로 서니 고기가 나비되고, 달빛이 바다에 비치니 구름 또한 땅이로다.蓮花
倒水魚爲蝶 月色入海雲亦地 ”²⁹⁾

연꽃이 하늘에 뿌리내리면 물고기는 물을 하늘 삼아 노니는 나비가 되고, 달빛이 바다에 들어가면 하늘은 바다가 되고 구름은 땅이 된다고 노래한다. 하나의 성품에는 경계가 없다. 성품의 눈으로 보자면 하늘의 새, 물속의 고기, 땅속의 지렁이는 사는 곳이 달라 제각기 달라 보이지만 실상은 모두 다 하나의 한울성품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감을 알게 된다. 경계는 우리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일 뿐이다. 마음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것이 곧 해탈이며 자유다.

성심본체를 얻은 마음의 경지를 해월은 다음처럼 아름답게 그려낸다. 성심본체를 얻은 마음이 ‘둥근 달’과 ‘봄기운’에 비유되고 있다. 그 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천하가 모두 밝고 천하에 봄이 오는 것이다.

“둥글고 밝은 달은 능히 천강의 물을 비추고, 한 봄의 화한 기운은 능히 만물의 정기를 낳는 나라.一輪明月 能照千江之水 一春和氣能生萬物之精 ”³⁰⁾

우리 은하계에는 태양과 같은 항성이 1천억 개가 있고, 우주에는 우리 은하계와 같은 것이 1천억 개가 있다고 한다. 도대체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짐작도 할 수 없다. 게다가 이 우주는 137억년에 폭발하여 빛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고 한다. 보통의 마음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우리 우주의 크기이고 나이이다. 그런데 그 광활하고 오래된 우주보다 더 크고 더 오래된 것이 마음이라고 의암은 말한다. 본래의 마음이 크고 오래되었다기보다는 무한하고 영원하다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천지일월이 가슴 속에 드니, 천지가 큰 것이 아니요, 내 마음이 큰 것이다.天地日月入胸中
天地非大我心大 ”³¹⁾

마음이 우주보다 클 수 있으려면 마음이 빛의 속도보다 빨라야 하고, 성품이 우주 대폭발이 일어났다고 하는 137억년이라는 시간과 함께 팽창한 우주를 자기 안에 품을 수 있어야 한다. 성심이 시공간의 상대성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거울과 달은 비록 모든 기운활동을 반영하고 모든 기운활동 안에 떨어져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물들거나 흔들리지 않는 본체에 비유되고 있다. 표현된 우주가 아무리 크고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한하고, 영원하고, 무궁한 성심본체를 벗어난 적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다. 즉, 유한 우주는 무한 본체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주가 무량광대한 것이 아니라 성심본체가 무량광대한 것이다. 이 무량광대한 성심본체가 열리기 이전에는 인간은 먼지티끌에 지나지 않지만 일단 열리게 되면 우주가 먼지티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29) 수운, 「영소」

30) 「천지인·귀신·음양」4-11.

31) 의암, 「강시」31-1-1.

III. 없음(無)과 있음(有)의 비유들

무(無)와 유(有)만큼 누구에게나 뚜렷하게 구분되는 개념도 없을 것이다. 종교와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논제이며 누구나 깊은 생각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개념이다. 나와 하늘(我天)의 관계, 성심(性心)의 관계를 없음과 있음(無有)로 깊이 성찰해보는다는 「13관법」이 최고이지 만³²⁾ 여기에서는 많은 종교들의 시조에게서 보이는 ‘근본이 없는 사람’의 비유, 천도교의 독특한 비유인 보이지 않는 물인 ‘음수(陰水)’의 비유, 어떤 무게도 어떤 형상도 비워내고 없애야 제대로 작동하는 ‘저울과 눈(眼)’의 비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3.1. ‘근본이 없는 사람’의 비유

“태고에 천황씨는 어떻게 사람이 되었으며 어떻게 임금에 되었는가. 이 사람의 근본이 없으며, 어찌 불연이라고 이르지 않겠는가. 세상에 누가 부모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 선조를 상고하면 그렇고 그렇고 또 그런 까닭이니라.太古兮 天皇氏 豈爲人 豈爲王 斯人之無根兮 胡不曰 不然也 世間 孰能無父母之人 考其先則 其然其然又其然之故也 ”³³⁾

수운의 표현을 그대로 살리자면 ‘무근지인(無根之人)’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바처럼 단군은 하늘인 환인의 아들, 환웅을 아버지로 하여 웅녀에게서 태어났다고 하고, 예수는 성령을 아버지로 하여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며, 천황씨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지만 최초의 임금·스승·아버지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정자를 받아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일반사람에게는 보이지도 않고 확신할 수도 없지만 무형의 어떤 초월, 절대, 하늘, 성령에게서 정자를 받아 태어났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무형의 본체가 진짜 아버지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진짜 아버지인 무형의 근본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본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보이지 않는 근본’을 근본으로 삼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즉, ‘무(無)’를 근본으로 삼은 사람들인 것이다.

이 보이지 않는 근본을 우리는 ‘본체’라 하며, 이 ‘본체’는 ‘무체’이기 때문에 정자처럼 인체 창조의 정보를 담은 어떤 유형의 체가 아니다. 이 무형의 체를 의암은 ‘성심본체’라 하였다. 나누어 말하자면 ‘성체(性體)’ 또는 ‘심체(心體)’라고도 할 수 있지만 무형이라 굳이 둘로 나누지 않고 합하여 ‘성심본체’라 부르는 것이다. 이 성심본체가 나의 근본이며, 나의 주체이며, 나의 본체임을 알게 된 사람은 일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된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유형의 나를 주체로 삼지만 이 새사람은 ‘무형의 나’를 주체로 삼기 때문이다. 또는 일반 사람들은 유한의 나를 주체로 삼지만 이 새사람은 ‘무한의 나’를 주체로 삼기 때문이다. 수운은 이 무형의 무한인 ‘무극대도(無極大道)’를 경신년 4월 5일에 얻었다고 하였다. 의암은 ‘무형의 본체’인 ‘무극대도를 견성(大道見性)’하였다고 표현하였다. 표현이 어색하지만 의미는 분명하다. ‘무극대도’, ‘무체법’, ‘천성’, ‘본성’, ‘자성’을 깨달아 하나가 된 것이다.

‘근본이 없는 사람’은 부모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무형의 근본’이 부모인줄 아는 사람, 해월의 표현으로 하자면 ‘천지부모(天地父母)’를 부모로 삼은 사람, 의암의 표현으로 하자면 ‘성

32) 없음과 있음의 문제는 「13관법」에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오문환, 『봄: 본래의 나를 찾는 마음공부』, 모시는사람들, 2009. 참조.

33) 「불연기연」2.

심본체(性心本體)를 깨달은 사람인 것이다. 어떤 형상이나 이름 또는 사람의 생각을 일체 떠났기에 어떤 이름으로도 부를 수 없고, 어떤 말이나 글로써 형용할 수도 없고, 생각으로 그려 볼 수조차 없기 때문에 ‘무극(無極)’이라, ‘무궁(無窮)’이라, ‘무체(無體)’라, ‘무형(無形)’이라 하는 것이다. 이 ‘무량광대’가 자성(自性)이며 자심(自心)임을 알게 되면 일체 장애와 일체 경계가 모두 다 허물어져 대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이 보잘 것 없고 나약한 마음이 본래 ‘무량광대’한 한울님 성품과 한울님 마음임을 깨닫게 되면 유무가 본래 하나임을 알아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심을 얻는 것이다.

‘근본없는 사람’, ‘부모없는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무극’과 ‘무체’를 나의 근본으로 삼고, 나의 부모로 삼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즉, 자성과 자심이 본래 ‘무량광대함’을 아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3.2. 음수(陰水)의 비유

<성심신삼단>에서 의암은 ‘성품이 없는 것은 마음 없는 나무인형과도 같다’고 하였다. 없는 성품을 체로 하여 있는 몸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또한 ‘마음이 없는 것은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다’고 하여 기운바다를 떠나서는 어떤 생명활동도 있을 수 없다고 한다.³⁴⁾ 이처럼 성품이치와 마음기운은 둘 가운데 어느 하나도 없을 수 없으며 본래부터 함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무와 유 의 동시성과 상호 불가피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유사한 비유를 해월의 음수와 양수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다.

형상이 없는 음수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형상이 있는 양수 안에 물고기가 살고 있지만 또한 보지 못한다. 그렇지만 사람은 양수를 볼 수 있다. 눈이 열리게 되면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음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물에는 음수(형상이 없는)와 양수(형상이 있는)가 있느니라. 사람은 능히 양수는 보고 음수는 보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음수 속에서 사는 것이 고기가 양수 속에서 사는 것과 같으니라. 사람은 음수를 보지 못하고 고기는 양수를 보지 못하느니라. 水有陰水陽水也 人能見陽水不能見陰水也 人之在於陰水中 如魚之在於陽水中也 人不見陰水 魚不見陽水也 確徹大悟然後 能睹此玄妙之理也 ”³⁵⁾

활연관통된 눈으로 볼 때 우주는 나눌 수 없는 하나의 물 덩어리로 보일 것이다. 수운이 ‘지기(至氣)’ 또는 ‘혼원일기’로 표현했던 것을 해월은 ‘음수(陰水)’로 비유한 것이다. 음수는 분명 무형이지만 진짜 아무것도 없는 무가 아니다. 물고기가 보이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다. <성심신삼단>에서 의암이 성품없는 사람을 마음없는 나무인형에 비유한 것은 해월이 음수 속에서 사는 사람의 비유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즉, 사람은 음수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성품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이다. 이 무형의 성품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이 이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이다. 만약 떠난다고 한다면 나무인형에 불과한 것이다. 아무리 똑같은 나무인형이라도 마음있는 사람은 아니다.

무유(無有)는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물고기가 보느냐, 사람이 보느냐, 활연관통된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있다’와 ‘없다’는 상대적이므로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다는

34) 「무체법경」, <성심신삼단>1-2-4.

35) 「천지이기」1-4.

‘진공묘유(眞空妙有)’와 같은 역설적 표현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경지를 모순의 종합, 대립의 병존, 반대의 통합 등과 같이 역설적 표현을 쓰지만 실상 유무를 관통하는 본래 마음에게 없음과 있음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한다.

의암은 성품 자리를 묘사하여 ‘비고 비었다(空空)’ 또는 ‘비고 고요하다(空寂)’ 등의 개념을 사용하지만 그런 자리가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하고 빈 자리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그러므로 비고 고요하고 불생불멸하고 희로애락을 떠난 경지가 마음을 떠나 무슨 천당이나 극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표현하였다. 의암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비고 빈 것이 본래 빈 것이 아니요, 마음이 비어서 공적계가 되니라.空空本無空 心爲空寂界
36)

마음 밖에 빈 것도 없고, 고요함도 없고, 불생도 없고, 불멸도 없고, 극락도 없고, 동작도 없고, 희노도 없고, 애락도 없으니 心外 無空空 無寂寂 無不生 無不滅 無極樂 無動作 無喜怒 無哀樂 37)

마음은 비고 고요해질 수 있으니 그 경지를 표현하기 위한 말이 성품이요, 공공이요, 공적이다. 이 마음에는 태어난다거나 없어진다거나 하는 일체의 움직임이 없으니 오는 것도 없으며 가는 것도 없다. 이 마음은 우주를 자기 안에 품고 있으므로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동서남북도 없다. 이 마음 안에는 없는 것이 없이 모두 갖추었으므로 구할 것도 바랄 것도 얻을 것도 깨달을 것도 없는 것이다. 이 마음이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으면 성품이라 하고 이 마음이 움직여 활동하면 마음이라 한다. 의암은 이 마음을 ‘위위심(爲爲心)’이라 하였으며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도 나오고, 도도 생기고, 사람도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³⁸⁾ 이 잠잠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천지도 생기고, 우주도 생기고, 사람도 생겼으니 이 마음이 얼마나 크며 이 마음이 얼마나 근원이 깊겠는가? 천도교는 이 마음을 찾아서 새사람이 되어 온통 우주를 모두 다 새롭게 하는 새로운 종교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해월의 ‘음수(陰水)’는 비고 고요한 마음으로 보았을 때의 우주근원의 기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운이 우주를 관통하는 하나의 기운을 ‘지기(至氣)’, ‘혼원일기(渾元一氣)’로 불렀다면 해월은 ‘음수(陰水)’라는 물에 비유하였다. 이 ‘음수’는 의암의 ‘성(性)’의 비유라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음수’에는 아직 활동성이 완전히 가해진 공공적적의 측면보다는 활활발발한 운동성이 있다. 이를 보거나 들을 수는 없어서 무(無)라고 할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진짜 없다고 할 수 없다. ‘음수’는 없으면서 있는, 고요하면서 활동하는 역설을 함께 담아내는 비유라 할 수 있다.

3.3. 저울(衡)과 눈(眼)의 비유

“시에 말하기를 「마음은 천지의 저울이 되나 달아도 한 톨의 무게도 없고, 눈은 예와 지금의 기록이 되나 보아도 글자 한 자 쓴 것이 없느니라.」 詩曰 「心爲天地衡 懸無一分重 眼爲古今錄 見無一字用」”³⁹⁾

36) 「후경1」2-1.

37) 「무체법경」, <신통고>1-3-6.

38) 「무체법경」, <성범설>1-8-3. “左邊一岸 如如寂寂 右邊一岸 塵塵濛濛 居其兩間 始生爲爲心 爲爲心始生 天地生焉 世界生焉 道亦必生.”

의암은 『시경(詩經)』에 나오는 위의 시로 「무체법경」의 <견성해(見性解)>를 맺고 있다. 견성의 뜻을 분명하게 표현해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저울과 망막은 모든 무게를 달고 모든 것을 보는 도구이지만 그 일을 마친 뒤에는 비고 고요하다는 사실을 비유한 것이다. 만 가지 생각을 모두 다 마음으로 하지만 어떤 한 생각이 마음에 적체되면 마음은 올바르게 작동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병에 걸리고 말 것이다. 마찬가지로 저울에 무엇이랴도 올려 놓으면 저울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망막은 모든 글자를 다 비추어주지만 어떤 한 글자라도 망막에 머물게 되면 눈은 제대로 볼 수 없다.

한 생각이 떠올라 사라지면 다음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일반 사람들이 올바로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므로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강변하겠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전도망상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다. 눈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본 것을 차곡 차곡 쌓아놓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장님과 다를 바 없다. 사람들은 본다고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실상(實相)을 보지 못하고 왜곡된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실상은 한울님 본체이고 왜곡된 모습은 보통 눈으로 보는形形色색의 세계이다. 자신은 세상을 올바로 보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름들과 형상들에 매여서 살아간다. 성심본체를 깨닫기 이전까지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전도망상에서 벗어나 장님신세를 면하기 위한 길을 해월은 다음처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거울이 티끌에 가리우지 않으면 밝고, 저울에 물건을 더하지 않으면 평하고, 구슬이 진흙에 섞이지 않으면 빛나느니라. 사람의 성령은 한울의 일월과 같으니, 해가 중천에 이르면 만국이 자연히 밝고, 달이 중천에 이르면 천강이 자연히 빛나고, 성품이 중심에 이르면 백체가 자연히 편안하고, 영기가 중심에 이르면 만사가 자연히 신통한 것이니라. 鏡不蔽垢則明 衡不加物則平 珠不渾淤則光矣 人之性靈也如天之日月 日中則萬國自明 月中則千江自照 性中則百體自安 靈中則萬事自神矣.”⁴⁰⁾

비고 고요한 성품을 얻고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으며, 모든 것이 번성하며, 모든 것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이다. 자연은 본래 그러하니 자연사물의 비유는 천도와 천덕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이 성령(性靈)이 자기의 본래 주인이고 자기의 감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이성이라는 것은 한 때 손님임을 알지 못할 뿐이다. 오히려 사람들은 이 감각, 감정, 이성을 본래의 자기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티끌없는 거울, 물건을 올려놓지 않은 저울, 진흙에 묻지 않은 구슬은 모두 성심본체를 얻은 마음을 비유한 것이다. 이때 마음은 신과 통(神通)하고 조화와 합일(造化定)된다.

IV. 여여(如如)한 자유

성심(性心)에 대하여 천도교에는 보다 다양한 비유를 찾아볼 수 있지만 이 글은 본체와 활동 없음과 있음(無有)의 비유로 범주화하여 여덟가지 비유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천도교는 성품이라는 본체는 마음이라는 활동과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不二)의 관계에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음이 비고 고요하게 되면 기운활동이 곧 본체와 동일해져 성심은 본래 하

39) 「무체법경」, <견성해>1-4-7.

40) 「수심정기」9-5.

나인(一如) 것이다. 성심(性心)은 없음과 있음(無有)이라는 근본대립의 개념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로 불이(不二)의 관계에 있다. 즉, 성심본체는 없다고도 볼 수도 있고 있다고도 볼 수도 있는 유무의 경계선에서 자유로운 곳에 있는 것이다. 성심(性心)을 이와 같이 개념적 사고로 일반화할 수 있겠지만 비유가 가지는 강력한 통찰적 현장감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비유는 철학적 분석이나 개념적 사색보다는 시적 상상력이나 열린 직관에 의하여 오히려 그 빛을 발한다.

하늘을 본래 비고 고요하여 보여줄 것이 없는 빈 거울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이 이런 저런 형상과 이런 저런 색깔을 구하니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므로 의암은 하늘은 '정시정문(正示正聞)'한다고 하였다. 구하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하늘이므로 세상에는 하늘의 이름들도 많고, 하늘의 모습들도 많고, 하늘의 색깔들도 많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늘의 본체는 아니며 사람들이 구하고 원하고 얻고자 한 것들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보여지고 알려진 이름과 형상에 매여 그 본래 실상을 덮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한다. 천도교는 오래된 동양의 비유들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여 한울님, 즉, 존재의 실상이자 성심본체를 보는듯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보이는 자연사물에 사로잡혀 보이지 않는 본체를 보지 못한다면 이는 크나큰 어리석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 본체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실상은 이름과 형상을 떠나서 본래 비고, 고요하고, 없다고 한다. 이 잠잠한 것을 얻은 사람은 보여지고 알려지고 생각되어진 것들에 집착하지 아니 할 것이다. 오히려 모든 알려진 이름과 형상과 색깔 너머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는 여여(如如)한 자유(自由)에 마음을 보낼 것이다. 이 마음에는 보려는 마음도 없고 아니 보려는 마음도 없다. 없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있으려고도 하지 아니한다. 의암은 '살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죽으려고도 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